

스페인 “곤살레스” 전 총리의
주요정책, 성과 및 평가

2005. 10.

주 스페인 대사관

차 례

I. 머리말	1
II. 곤살레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출범	3
(1970년대말의 시대상황)	
(곤살레스 총리의 성장 배경)	
(사회당 정부출범)	
III. 재임중 주요정책과 성과	5
1. 경제·사회분야 정책과 성과	5
(80년대초 스페인의 경제·사회문제)	
(EU가입과 경제 선진화 추진)	
(시장경제와 산업발전 전략)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자유화)	
(사회개혁과 사회보장제도)	
(노동문제)	
2. 외교·안보정책과 성과	11
(외교·안보정책 목표)	
(NATO 잔류와 대미국 협력관계)	
(중동문제 참여와 대중남미국가 관계)	
IV. 사회당의 패배와 곤살레스 정책의 평가	14
(사회당 정부의 패배)	
(곤살레스 정책에 대한 평가)	
(최근 근황과 활동)	

I. 머리말

스페인은 투우, 플라멩고 춤 등 유희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캐나다 보다 큰 세계 8위 국가이며, 2003년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유럽에서 제일의 관광수입을 기록한 국가이다.

특히, 우리에게서는 유럽에서 제4위 수출시장이다.¹⁾

서유럽국가들중 민주화 과정을 늦게 겪고, 또한 경제개발이 늦어 1986년에야 EC에 늦게 가입한, 스페인이 오늘날 이와 같은 경제적 발전과 경기호황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1982-1996년간 집권한 곤살레스(Felipe Gonzalez) 전 총리의 치적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곤살레스 전 총리가 집권한 1982년은 스페인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민주화와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역사적 시점으로 본다. 곤살레스 전 총리는 선거 슬로건으로 “변화(El Cambio)를 주창하였으며, 집권후에 “변화의 정부”를 표방하고 국가현대화, 민주주의 정착과 유럽화를 주요정책 목표로 추진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거대한 비용을 치루는데 스페인은 어떻게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었는지 주목된다.

1) 스페인관련 경제통계 :

- 국가별 GDP 규모순위(2004년 세계은행) : 미국(1), 일본(2), 독일(3), 영국(4), 프랑스(5), 이태리(6), 중국(7), **스페인(8), 9,914억불** 캐나다(9), 한국(11) 임.
- 유럽 국가별 관광수입(2003년 WTO) : **스페인(417억불)**, 프랑스(370), 이태리(312), 독일(230), 영국(227)임.
- 우리의 대 유럽 국가별 수출액(2004년) : 독일(83억불), 영국(55), 이태리(34), **스페인(28)**, 프랑스(26)임. 단, 중개무역지인 화란은 제외함.

이는 1975년 프랑코 총통 사후의 전환기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스페인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지만, 곤살레스 총리의 통치철학²⁾과 국가현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의 소산이며, 대외적으로는 스페인의 EC가입과 그당시 국제여건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곤살레스 총리는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NATO 탈퇴를 1986년 국민 투표에 회부하여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후보시절의 공약과 다른 정책을 추구한 것도 있으며, 정치노선도 공산당과 결별하는 등 극단적인 좌익편향을 버리고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의 실용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서독 브란트 총리를 존경하면서도 80년대 EC의 주도국인 콜 총리하의 서독과 당시 미국의 보수적인 Bush 행정부와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³⁾

곤살레스 총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치적을 이루었지만, 집권말기에는 부정부패 등 비리사건으로 집권 사회당의 인기가 하락되고 테러 문제에 대한 실책으로 1996년 3월 선거에서 야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작년 3월 총선에서 스페인의 사회당이 8년만에 재집권하였다. 비록 곤살레스 총리가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나 많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과거 곤살레스 총리시절의 사회당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 곤살레스 총리가 추진한 시장경제, 세계화 경제정책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과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당시 일부 비판에 대해 “지도자는 행정만을 잘 하는 것으로 부족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헌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회당 정부출범후 정책내용이 온건해졌으며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기본이념간에 조화 추구
- 현실적 필요성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시행 그러나 사회주의 기본노선 유지

3) 사회당 정부는 1991년 걸프전당시 스페인 전함을 지원하고, 미군전투기에 급유지원, 인원 및 군수물자 수송지원을 위해 스페인 기지를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 허용함으로써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II. 곤살레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출범

(1970년대말의 시대 상황)

1975년 프랑코 총통이후 민주화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열망이 일시에 분출되었다. 특히, 프랑코 총통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주화와 국가현대화가 요구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오일쇼크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Suarez 총리하의 과도정부는 1977.4월 공산당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그동안 잠잠했던 과거 프랑코 총통을 추종하던 우익세력을 자극하였고, 드디어 1981.2월에는 일부 군부인사들이 의회를 점령하고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 사건으로 인하여 스페인 국민들은 과거 프랑코 총통 시절의 우익세력에 대한 반감이 되살아났고, 또한 보수우익 정당인 민주중도연합(UCD)도 내부분열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70년대말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주화로 전환기에서 발생한 혼돈상태에서 스페인 국민들은 보다 새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했다.

(곤살레스 총리의 성장배경)

곤살레스 총리는 사회주의 노조인 노동자총연맹(UGT)의 회원인 부친의 둘째 아들로써 1942년 마드리드 북쪽 세르비아에서 출생했다. 대학시절 부터 그 당시에는 활동이 금지된 스페인 사회당(PSOE)과 관련된 청소년 단체의 리더로 활동하였고, 1964년 사회당 정식당원이 되었다. 1966년 법대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다.

1972년에는 해외망명중인 사회당 집행위의 국내위원으로 피선되고 1974년에는 사회당의 제1서기로 피선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사회당내의 개혁파들의 지지와 국제사회주의연맹(SI)의 지도자인 독일의 브란트 총리, 스웨덴 Palme 총리 등의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

70년대 초반 스페인 민주화의 과정에서는 공산당 등 강경좌익 세력들과 연합하였으나, 점차 이들과 결별하고, 온건한 사회주의 노선 특히, 그 당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였다.

(곤살레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출범)

보수우익정당이 분열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실시된 1982년 3월 총선에서 곤살레스의 사회당은 총 350석중 202석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스페인 역사상 최초의 좌익 성향의 사회당(스페인 사회주의 노동당 : PSOE)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스페인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로 당시 40세의 사회당 곤살레스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투표율도 80%를 상회하는 사상 최대의 기록이며 이는 사회당의 국가현대화, 민주화의 정착 그리고 정부의 변화를 희망하는 스페인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사회당은 냉혹한 현실문제를 타개해야만 했다. EC가입 조건의 충족을 위한 개혁정책과 긴축재정, IMF의 정책조정(1982-86) 수락 등을 단행해야만 했다. 곤살레스 총리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긴축정책, 세금인상 등 비인기적인 조치도 과감하게 취하게 되었다.

Ⅲ. 재임중 주요정책과 성과

1. 경제·사회분야 정책과 성과

(80년대초 스페인의 경제·사회문제)

프랑코 총통의 장기간 독재에 따른 사회전반의 경직성과 1975년 이후 민주화를 위한 전환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 불확실성이 주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70년대중반 이후 오일쇼크에 따른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악화와 스페인 경제의 폐쇄성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었다.

세계적으로는 산업화와 기술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의 산업구조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⁴⁾

(EC 가입과 경제 선진화 추진)

스페인은 프랑코 총통 집권시기인 1962년 EC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하여 가입이 좌절된 바 있다. Suarez 총리의 과도정부 시기인 1979년 가입협상이 시작되었고, 곤살레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출범이후 적극 추진되어 1986년 1월부터 EC회원국이 되었다. 스페인의 EC 가입은 과거 보호주의 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global economy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4) 1982.12월 곤살레스 총리 취임당시 스페인 경제는 70년대 전반에 걸친 침체의 후유증으로 경제적 난국 상황이었음.

- 경제성장 : 1.2%, 인플레이 : 15%, 재정적자 : 6%

- 무역적자 : 40억불(GNP의 2.3%), 일인당 GNP : 4,500불

EC로부터 막대한 보조금(구조기금)과 결속기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 경제 선진화를 이루는 데 EC 가입은 큰 역할을 하였다.⁵⁾ 최근 유럽 학자들은 EU가입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경제적 성공을 달성한 국가로서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거론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EU가 회원국에 제시한 4대 수렴 조건(convergency plan)이다.⁶⁾ 이를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스페인 경제구조를 견실화 하는데 성공하여 선진국 경제체질로 변화시켰다. 대표적인 예로서 EC가입 이전 평균 6%이었던 인플레이션이 3%로 안정되었고, 정부재정의 균형달성, 적정이자율 유지 등이다.

스페인의 EC가입 효과는 안정적인 국민경제 운용뿐만 아니라 EC 기준에 따라 경제·사회의 개방화를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데도 있다.

노동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5) 스페인은 1986년 EU가입이래 EU로부터 국가개발을 위한 막대한 보조금(구조기금, 결속기금)을 지원받아 인프라 구축 및 지역개발 등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매년 평균 60억 유로 수혜)
- 1994-1999년간 스페인에 지원된 EU구조기금(Structural Fund, 총 350억 유로로 전체 구조기금의 25%가 스페인에 지원됨)은 매년 1% 경제성장, 0.4% 고용증대 효과(30만 고용)를 창출
 - 이외에 스페인은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와 함께 결속기금(Cohesion Fund, 1인당 GDP가 EU 평균 90% 미만인 국가에 지원)도 지원받음.
- 6) Convergency Plan : 회원국들이 EC 기준에 의거해 거시 경제정책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목표 (현재 '리스본 전략'으로 개정)
- 가격안정의 실현 : (인플레가 가장 낮은 3개국의 연평균(1.5% 이하)에 수렴
 - 공공재정의 안정 : GDP 대비 예산 적자 3%, 공공부채 60% 이내
 - 평가절하불허 : 최소 2년간 다른 어떤 회원국의 화폐에 비해 평가절하 없이 EMS(유럽 통화 시스템)의 환율 메카니즘에 의해 책정된 정상적인 부침비율 준수
 - 경제수렴의 장기성 : 가격안정부분에서 가장 앞선 3개국의 평균이자율(2%이내)에 접근하는 장기이자율 준수

(시장경제와 산업발전 전략)

산업발전이 국가현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국가기간산업과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사회당 집권후 1982-85년간 약 200여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였고 또한, 구매나 투자의향자가 없는 약 400여개의 부실기업을 청산하였다.⁷⁾

민영화의 주요대상은 철강, 조선산업과 전기·통신·교통 등 인프라분야로서 과거 프랑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지나친 보호로 독점적 폐단과 저효율성이 문제가 되었고, 공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민들에게는 고비용과 낮은 서비스, 정부에게는 재정악화를 불러온 주된 요인이었다.

한편, 구조조정 대상은 대부분 노동집약 산업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근로자들의 해고를 유발하여, 선거공약으로 8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곤살레스 총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국가 현대화를 위해서는 일부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대체 일자리 주선, 실업수당 강화 등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여 대응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른 산업구조개혁과 산업정책은 친기업적이라고 하여 노조와 노동단체의 반발을 가져왔다.

1985년과 1988년에 각각 일어난 노조의 총파업은 스페인을 거의 마비상태로 몰아넣은 바 있다.

7) 1982년 Rumasa 공기업(Grupo Rumasa 소속 800여개 업체 및 415만명 고용자를 거느린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 추진, 1985년까지 200여개 매각 나머지 400여개는 부실기업으로 청산 조치
○1988.9부터 독점 업체인 전기(Endesa 기업), 석유(Repsol 기업) 등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SEAT) 산업을 민영화 추진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자유화)

스페인의 EC가입은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서도 자유화, 개방화가 필연적이었다.

1987년 이자율 자유화 조치이후 1991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은행의 Big Bang이 이루어졌다. 1976년 64개 은행이 1987-91년간 합병·흡수 통합으로 1991년에는 35개로 축소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처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금융개혁의 덕택으로 오늘날 스페인은 세계 1000대 은행에 속하는 은행을 45개나 보유하고 있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의 금융 강국으로 성장하였다.⁸⁾

1988년에는 증권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였으며, 증권시장은 유럽기준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작지만 외국자본 유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4년에는 중앙은행 독립법을 제정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사회개혁과 사회보장제도)

서유럽 복지국가를 모델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사회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6세까지 무상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수차에 걸친 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

8) 2004년 7월 The Banker지가 세계 1000대 은행을 선정 국가별 보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미국(227개), 일본(113개), 독일(86개), 스페인(45개), 이태리(37개)이며 한국은 12개로 18위 순위임.
- 스페인 Santander 은행(BSCH)은 2004년말 자산규모 571억 유로로 세계 9위, 유럽 4위의 금융 기관이며, 스페인은 지방은행이 잘 발달되어 있음.

향상을 위하여 남녀평등권을 강화하였으며, 형법조항을 개정하여 카톨릭 전통사회에서 금지해 온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병역의무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개혁과는 달리 1985년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연금수령 조건을 보다 강화하고 납부기간도 확대하였는 바, 연금제도개혁은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연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노동문제)

교육·노사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곤살레스 총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개혁이 잘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민주사회는 합의의 사회이므로 상반된 이익들을 중재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적법하게 대표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치는 이에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있다. 정치가 필요 없다고도 하나, 비대한 몸집의 정부도 안되지만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무기력한 정부도 안될 것이다. “규제해제”가 “보이지 않는 손”의 이치에 따라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잘 안되면 자본가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되지만,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므로 노·사 양측이 회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사실 곤살레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노조(UGT, CC.OO 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집권하였다. 그러나 집권후 경제개혁 추진과 EC가입조건 충족 등 현실적인 필요로 1984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부분적 허용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노동계의 이익에 손상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노동법 개정 등 어려운 개혁을 실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정부조치에 우호적인 일반여론과 의회내에 절대다수의석을 유지하고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프랑코 총통 사후 민주주의 전환기에 직면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체결한 “몽클로아(Moncloa) 협약” 정신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⁹⁾

노조측은 노조 지지로 집권한 사회당정부가 사용자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하여 결국 1988년 12월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사회당의 권위가 손상되었으나 당시 많은 스페인 국민들은 총파업의 부작용에 반발하였고 그 이듬해 인 1989년 10월 총선에서 사회당에게 다시 절대다수 의석을 안겨주었다.

9) 스페인의 민주화 전환기(1975-1978년 프랑코 총통사후 신헌법 채택시까지)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을 통한 신헌법 채택을 위해 1977년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서명한 사회협약의 일종임.

- 경제개혁 및 건전화에 관한 협정, 정치·사법개혁 협정으로 구성

-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상호협력하에 국가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2. 외교·안보정책과 성과

(외교안보정책 목표)

곤살레스 사회당 정부는 국내적으로 개혁, 개방과 민주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를 위해 유익한 여건을 조성하는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국내민주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외환경조성과 프랑코의 장기집권으로 고립화된 스페인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표였다.

따라서 스페인에게 가장 필요한 EC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독일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NATO 잔류와 대미국 협력관계)

곤살레스 총리가 집권하기전 스페인은 1982년 5월 NATO에 가입하였다. 당초 곤살레스 총리는 후보시절 NATO 탈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집권후에는 NATO에 잔류하되 군사분야에 스페인이 참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였다. 투표결과 52.5% 찬성으로서 NATO 잔류가 결정되었지만, 국민투표는 국론분열을 초래하였고 사회당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하였다. 곤살레스 총리는 이를 재임중 가장 큰 실수라고 자인한 바 있다.¹⁰⁾

10) El futuro no es lo que era(미래는 과거와 다르다)의 곤살레스 저서 P 136 참조

- 사회당 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지낸 Javier Solána(현재 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1995년 NATO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스페인은 국민당 정부하에서 NATO 군사조직에도 참여하게 된다.

스페인은 1988년 11월 포르투갈과 함께 서유럽 연합(WEU)에도 가입하여 서구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하였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 스페인은 전함지원과 함께 미군전투기 출격을 위해 급유와 인원·물자 수송을 위한 군수지원 등 무제한으로 스페인 기지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미국과는 1983년 신우호협력 협정을 비준하고 1988년에는 신방위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스페인내 미군기지 철수를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곤살레스 총리는 당시 미국 Bush 대통령과 정치적 이념을 떠나 개인적으로 막역한 사이 이었다

이러한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곤살레스 총리는 독일 통일문제에 대해 Bush 대통령과 서독 콜 총리간 이견을 해소하는데 다리역할을 하고 Bush 대통령이 독일 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도록 기여하였다.¹¹⁾

독일 콜 총리는 블란서 미테랑 대통령과는 달리 스페인의 EC 가입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러한 보답으로 곤살레스 총리는 정치적 노선이 독일 사민당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의 콜 총리에게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개인적인 유대를 돈독히 한 바 있다.

11) 199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독일 통일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곤살레스 총리 언급내용

(중동문제 참여와 중남미 국가들과 관계)

스페인은 15세기말 카톨릭 세력 강화를 위해 유대인을 추방 조치하는 등 역사, 문화적으로 아랍지역과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이스라엘과는 국교가 없었다.

그러나 스페인이 EC에 가입하고 서구동맹의 일원으로 대외적 활동을 위해서는 중동문제에 대한 일정한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곤살레스 총리는 1986년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으며, 이와 함께 아랍국가들과도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1991년 10월 마드리드에서 제1차 중동평화회담을 주최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에 평화협상의 길을 마련하였다.

중남미국가들과는 과거 식민지시대의 종주국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활용하여, 중남미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원조·투자 활동을 통해 이지역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1991년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를 창설하여 중남미지역에서 스페인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켰다.

IV. 사회당의 패배와 곤살레스 총리 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당 정부의 패배)

사회당 정부는 1982년 집권 이후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였다.¹²⁾ 집권후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사회·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당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사회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조·노동단체 등이 점차 사회당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1993년 총선에서는 의회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총 350석중 141석 차지) 카탈루냐 지역당(CiU)과 바스크지역당(PNV)의 지지를 받아 제4기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사회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점차 하락함에 따라 1995년 9월 카탈루냐지역당(CiU)이 사회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에 따라 1996년 조기총선에서 보수우익 성향의 국민당(PP)에 정권을 내주었다.

사회당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총선 패배 요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1988년 바스크 분리주의 테러조직을 대상으로 한 내무부 비밀 암살 조직 운영이 밝혀져 경찰 2명이 기소된 사건발생
둘째, 1990년 부터 사회당 요인과 기업인들간에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이 계속 발생되어 여론의 급속한 악화
셋째, 1993년 경제악화로 스페인화의 급속한 평가절하(6개월내 3회의 평가절하 조치)

(곤살레스 총리 정책에 대한 평가)

곤살레스 총리의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개혁 정책은 스페인의 EC 가입 조건과 이에 따른 IMF의 조정기간(1982-86)에 시행된 것으로

12) 1982년 총선 48.3%, 1986년 총선 44.1%, 1989년 총선 39.6% 및 1993년 총선 38.8%를 기록함.

대부분 정통적인 방법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영화 계획 등 주요 경제정책은 국민당(PP)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스페인은 민주화를 정착시키면서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실용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오늘날 유럽연합(EU)의 5대 경제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동정책과 대 테러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부문으로 경제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대외정책에 있어 스페인의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었고, EC가입과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은 스페인의 국내개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많은 업적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국내경제, 정치적 상황 악화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사회당의 패배와 곤살레스 총리의 평가로 알 수 있다. 현재 미국과의 관계는 2004년 재집권한 사회당 정부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에 반대하여 스페인 군대를 철수하는 등 소원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는 곤살레스 총리가 집권하던 시기와 다른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최근 근황과 활동)

곤살레스 총리는 퇴임후에도 1999년까지 국제사회주의연맹(SI)의 부회장(1978-99간 역임)으로 활동하였고, 그후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응하여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정립하기 위해 SI내에

설치된 “세계화 발전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드리드 소재 “세계화 발전재단”의 총재로서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를 주관하고 언론기고 등을 통하여 스페인의 사회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끝.